



“승가 계율불감증 벗자”

‘사분율’ ‘한국불교계율사상연구’ 동시 출간

불교계율사상연구(1)가 그것(토방판).

철우스님이 번역한 <사분율>은 한글세대 스님들을 위해 쉽게 풀이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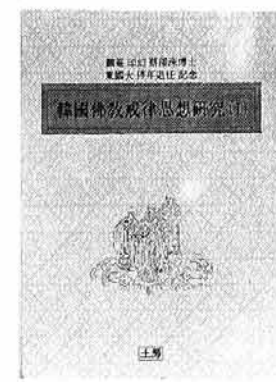
순하는 행을 하면서 살라'고 강조하셨으나 오늘날 계율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으로 역순하는 행이 많다'면서 "계율 불감증에 걸린 우리의 오늘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책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인환스님이 자신의 계율관련 논문 20여편을 모아 펴낸 <한국불교계율사상연구(1)>은 제1장 고구려 백제의 계율사상 연구, 제2장 신라불교의 계율사상 연구, 제3장 진표의 계율사상 연구, 제4장 대현법사 연구, 제5장 원효의 계율사상으로 구성됐다. 신라불교의 계율사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책은 불교 실천의 기본이 되는 계율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불교실천의 중심으로써 지계(持戒)를 중시하는 한국불교 기풍의 근원이 신라불교에서 구축된 계율사상의 여운"이라는 것을 보여

삼국시대 계율사상 종합 고찰 계율사상

주고 있다. 특히 '계율이란 인연에 적응하여 생긴 것이기에 지켜야 할 것은 잘 지키고, 적합하지 못한 것은 가려 계를 파하였다 하더라도 계율의 본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원효의 계율에 대한 뚜렷한 견해가 후대의 대현법사와 진표율사로 이어져가는 계율사상의 중요한 흐름이라



고 논파하고 있어 최근 계율논쟁에 대한 해법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환스님은 이번 <한국불교계율사상연구(1)>에 이어 조만간 <한국불교계율사상연구(2)>도 간행할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출판화제 인도총서 시리즈 5월초 '햇빛'

최근 인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역사 사상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인도 총서 시리즈'가 도서출판 규장각에서 출간된다.

물질문명사회가 잃어버린 순수함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인도를 조명함으로써 현대인들의 적박한 마음을 적셔줄 이 시리즈는 오는 5월 초 그 첫 번째로 <고전요가의 이해와 실천(가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영국의 인도학자 어니스트 워드의 원작(요가)을 동국대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한 임승택씨가 번역한 이 책은 요가수트라, 파탄잘리 등 고대문헌에 나타난 요가의

원리와 실천방법, 그리고 요가와 불교와의 연관성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대 류경희교수의 <인도종교와 철학 기행문(가제)>도 출간될 예정이다. 기존의 단순한 신변잡기식 인도여행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등 인도에 퍼져있는 종교를 통해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을 풀이해나가는' '나를 찾는 여행기' 성격의 책이 될 것이라고.

이밖에도 규장각은 <읽게 읽는 인도철학 개론(가제)>, <인도의 역사(가제)> 등 인도관련서를 계속 출간할 예정이다.

사분율 철우스님 16권으로 완역

2천5백여년전에 만들어졌던 승가의 계율이 오늘의 현실속에서도 과연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계율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계율과 관련된 책들이 주목을 끈다. 파계사 영산율원 원장 철우스님이 고려대장경의 <사분율> 전60권을 한글로 번역 발간한 <사분율> 16권과 인환스님(동국대명예교수)의 <한국

며 뒷부분에는 고려대장경 원문도 그대로 실었다. 그동안 <사분율>이 동국대출판사에서 번역되기는 했었지만 고려대장경 수록 <사분율>이 직접 완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사분율>은 오는 5월 중순 파계사 '영산율원 도서관' 완공을 앞두고 발간돼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철우스님은 "부처님은 '비구는 수

출판소식 한글대장경 '광찬경 외'

동국대출판사(원장 윤희)가 한글대장경 <광찬경 외>, <유가대교왕경 외>, <아비달마사정리론 3>을 번역 발간했다.

<광찬경 외>는 <아유월차경(阿惟越致經)>, <광박엄정불퇴전론경(廣博嚴淨不退轉輪經)> 등이 함께 번역돼 있다.

<유가대교왕경 외>는 대변조금강여래가 정광천 대누각에 있을 때 금강수보살의 물음에 삼매만다라와 관상법 설수제자법 등의 법을 설한 것이다. <아비달마사정리론 3>은 현장이 번역한 아비달마사정리론을 4권에 나눠 번역한 세번째권이다.

'불가의 상징의례' 발간

불가의 상징의례 의식에 대한 이해와 정례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불가의 상징의례>가 나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펴낸 이 책은 각종 상징의례 책자를 재구성해 불교의 상징의례 의식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요령을 수록하고 있다. 부록에는 영결식 법어, 영결사, 조사, 후도사, 왕생발원문을 담아 참고가 되게 했다. 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실었다.

고려원 재기 움직임

지난달 부도를 낸 출판사 고려원이 특유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일시 폐쇄됐던 고려원의 초대형 파주창고(보관도서 3백만권)가 도서 출고를 재개했고, 그동안 거대 관계에 있던 인쇄제지재분야의 협력업체들이 지난주부터 잇따라 회합을 갖고 고려원 재기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것.



美 어린이 禪우화집·명상교본 발간

최근 미국의 출판사 위더힐(Weatherhill)이 어린이를 위한 선(禪)우화집과 명상교본인 <선(禪 Zen Inklings)> <신기한 일(Magic Happens)> <어린이 명상교본(Meditation for Kids)> 등을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D. 리치(美)의 <선>과 L. 피쉬백(美)의 <신기한 일>은 인도 전래동화와 부처님 전생담을 새롭게 각색한 우화와 설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선>은 미국에서 권위있는 <출판자

새로운 책

▲법구경=불교 사상의 핵심을 시적인 직관으로 표출하여 고전의 의미를 한 층 더 높이는 원시경전이다. 경률(經律)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금옥과 같은 명구들로 이루어진 법구경은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이요, 견줄데 없는 큰 사상의 보고다. 동국대역경위원을 지낸 김달진씨가 지난 65년에 간행했던 <법구경>을 개정보완, 사료관 양장본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현암사 8천원>
▲연극감상법(안치운 지음)=빛깔 있는 책들의 공연예술사 시리즈 연극편. 연극을 이해하고자 하는 초보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다. 연극은 무엇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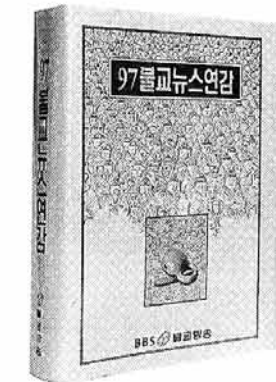
96년 불교계 화보로 되돌아 본다

'97 불교뉴스연감' 나와... '한국불교 인명록' 도

교계 최초의 불교뉴스연감이 출간됐다. 불교방송이 펴낸 '97 불교뉴스연감'은 교계 전반의 동향과 각부분의 주요자료 통계 등을 엮어 1996년 불교계를 한눈에 되돌아 볼 수 있게 했다.

'97 불교뉴스연감'은 △정축년 각종단 신년법어 △96년 불교계 10대 뉴스 △되돌아본 96년 불교계 △특집-사찰환경보존운동 △월별뉴스 △기획특집 △96년 불교계 일지 등 총 708쪽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영삼장부 종교관향정맥, 사찰환경보존운동, 불교관계법령 개정, 책불국성 등 96년 10대 뉴스를 관련사건과 함께 화보 중심으로 편집했다.

또한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스님과 제가불자 2천여명의 이력을 발췌부록으로 <한국불교인명록>에 담아 소개했다. 불교방송 연감기획팀 박재순팀장



은 "이번 연감이 각 종단을 초월해 교계 전체의 활동상을 담아 종단연합의 계기를 부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가귀감' 생활과 연관 실법하듯 풀이

개미집과 하루살이 법인 지음

<개미집과 하루살이>는 선을 수행하는 구도자가 알고 행해야 할 모든 문제를 간명하게 정리한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골라 쉽게 풀이한 각원사 주지 법인스님의 법화집이다. 일

은 스님의 이야기도 곳곳에 녹아 있다. <선가귀감>의 한문원문을 쓰고 그 원문 밑에 주를 달았으며 실법하듯이 친절하게 일상생활과 연관시켜 해설을 덧붙였다. <불자사 8천원>

◇금주의 베스트볼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2	불교인문	포 교 인	조계종출판사
3	힘든세상 도나 뒤지	효 립	가 서 원
4	종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한대불교신문	여시아문
5	실천티벳불교인문	홍 선	무 량 사
6	49세 공덕과 의미	권 집 무	이 바 지
7	화엄경의의	무 비	불 광
8	참선교육	수선회편집부	수선출판사
9	보현행원품 강의	무 비	민 족 사
10	유식인문	대서지재도	지 공 사

구입문의:(02)737-0695

“살 빼야지, 살 빼야지.”

2,500여년간 승가의 생활 속에 스며 있는 양생의 지혜. 군더더기 없는 삶, 군살 없는 몸매 유지의 비결 - 불교 다이어트.

저울의 눈금을 기준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실패, 아니면 부작용이 따르기 쉽다. 모든 것을 몸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계율을 따라 생활할 뿐, 특별한 방법으로 몸을 돌보지 않는다. 승가의 생활 그 자체가 건강의 비결인 까닭이다. 물론 대부분의 스님들은 맞심년 동안 1~2kg 정도의 차이로 몸무게를 유지하며 생활한다. 몸은 항상 변화한다. 그것이 늙음이고, 병듦이고, 죽음이다.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 바탕 위에서 불가의 생활을 몸소 실천해 보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다이어트될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책 ①

불교 다이어트

그까짓 살 좀 있으면 어때

국판 224쪽/ 학림 지음
여시아문 / 값 5,000원

제1장 승가의 생활

제2장 음식물로 다이어트를

제3장 채반으로 다이어트를

제4장 쾌면으로 다이어트를

제5장 호흡으로 다이어트를

제6장 식욕을 끊어 다이어트를

제7장 몸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제8장 요가로 다이어트를

제9장 마음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여시아문은 '물든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견뎌냈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065(영업부), 737-0061(편집부), 737-0067(팩스)